

폭력노출이 집단괴롭힘 가해와 피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변인들과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이 해 경 김 해 원

한양대학교 호서대학교

이 연구에서는 첫째,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행동에 관련된 심리적 변인들을 밝히고, 둘째, 다양한 심리적 변인들 중 폭력노출이 집단괴롭힘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폭력노출이 다른 심리적 변인들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면서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827명의 서울시내 여자중학생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첫째, 가해경험은 학습스트레스,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공격성, 모든 4종류의 폭력 노출, 둔감화가 높을수록 더 많았고, 자존감, 가족지지, 공감이 적을수록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피해경험은 교사지지, 스트레스, 소극적 대처, 공격성, 모든 4종류의 폭력노출이 높을수록 더 많았고, 자존감, 가족과 친구의 지지가 낮을수록 더 많았다. 둘째, 회귀분석 결과 가해경험에 대해서는 모든 4종류의 폭력노출과 공격성, 둔감이 중요한 예측변인이었고, 피해경험에는 교사폭력, 자존감, 교사와 친구의 지지가 중요한 예측변인인 것으로 나타나 집단괴롭힘 현상에 대한 폭력노출의 강한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집단괴롭힘 가해와 피해에 대해 폭력노출과 각 심리적 변인이 어떠한 상호작용효과를 갖는가를 검증한 결과, 폭력노출은 가족의 지지와만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가해나 피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토대로 청소년들간의 집단괴롭힘에 대한 대처방안이 논의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집단괴롭힘을 당한 피해학생이 자살하면서 청소년들간에 일어나는 집단 괴롭힘 문제가 학교와 사회의 중요한 관심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여러 연구들이 시도되었으나 다수 학생들의 응답을 토대로 한 신뢰로운 연구는 1997년 이후 불과 10여 개에 달하며 그 내용 또한 매우 제한적이다(권준모, 1999).

국내에서 연구되어온 집단괴롭힘에 대한 이들 연구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많은 연구가 괴롭힘의 가해나 피해 정도를 조사하거나 가해나 피해의 구체적 형태와 특징을 파악하는 등 집단괴롭힘 현상의 표면적인 특징을 밝히는데 주된 초점을 두어 왔다는 점이다(예: 나병현, 1996; 김용태, 박한샘, 1997; 김준호, 박정선, 김은경, 1997; 박경숙, 손희권, 송계명, 1998; 이춘재, 곽금주, 1999). 둘째, 집단괴롭힘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개인이나 집단상담사례를 통한 상담학적 접근(예: 손진희, 홍지영, 양재혁, 1998; 이규미, 문영춘, 홍혜영, 1998; 이시형, 1998)이 많이 시도되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집단괴롭힘 피해자가 갖는 개인의 특수한 배경과 특징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집단괴롭힘 현상이 학생들간에 이미 지나칠 정도로 일반화되어 사회적으로 그 심각성이 우려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상담과 같은 미시적 접근과 함께 다양한 사회심리학적 원인을 밝히는 거시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가운데 김혜원과 이해경(1999)은 그들의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변인들과 심리적 변인들 중에서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예측변인들을 확인하고, 특히 폭력노출이 중요한 예측변인이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에서 첫째, 사회적 변인들 중에서 가해행동은 학년, 학교위험도, 부의 직업이 중요한 예측변수로 나타난 반면에 피해행동에 대해서는 부의 직업, 학교위험도가 중요한 예측변수로 나타났다. 둘째, 심리적 변인들 중에서 가해행동은 또래폭력, 가정폭력, 매체폭력, 공격성이 중요한 예측변수로 나타난 반면에 피해행동은 교사폭력, 자존감, 교사지지, 친구지지가 중요한 예측변수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에서 볼 때, 사회적 변인들보다 심리적 변인들이 가해와 피해행동에 더 중요한 예측변수가 됨을 알 수 있고, 또한 심리적 변인들 중에서도 또래, 가정, 교사, 대중매체를 통한 폭력노출이 가해와 피해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에서는 가해와 피해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이 갖는 상대적 중요도를 확인하는 것을 연구문제로 삼았기 때문에 심리적 변인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에는 관심을 두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김혜원과 이해경(1999)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폭력노출 경험이 집단괴롭힘 현상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결과를 토대로, 폭력노출 경험과 학생 개인들이 갖고 있는 다른 심리적 요인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며 이런 상호작용이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행동에 어떠한 역동적인 과정을 거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집단괴롭힘(bullying)의 정의와 특징

Olweus(1978, 1984)는 bully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집단괴롭힘을 “한 학생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학생들로부터

부정적인 행동을 당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bullying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집단따돌림(예: 박금주, 1999; 권준모, 1999; 이춘재, 박금주, 1999) 또는 집단괴롭힘(예: 강진경, 유형근, 1999; 한종철, 이민아, 이기학, 1999)이라는 두 개의 용어로 동시에 번역,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bullying의 사전적인 의미와 Olweus의 개념정립(사회적 소외와 같은 따돌림 행위의의 신체적 폭력을 포함)을 고려할 때 bullying은 집단따돌림보다는 집단괴롭힘이라는 용어로 번역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bullying의 의미를 집단괴롭힘으로 해석하였다.

Bullying은 그 개념에 두 가지 중요 요소를 갖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행동이 대체로 집단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행동들은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목적을 지닌 공격행동을 일컫는다는 점이다. 여기서 집단괴롭힘의 유형은 크게 직접적인 괴롭힘과 간접적인 괴롭힘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직접적인 괴롭힘이란 피해대상에 대해 폭행이나 구타 뿐 아니라 위협, 못살게 굴고 놀리는 것과 같은 공격적 행동을 가하는 것이고, 간접적인 괴롭힘은 집단으로부터 사회적 소외, 내적인 배제를 가하는 것이다(Olweus, 1993). 또한, Olweus(1993)는 집단괴롭힘을 학원폭력의 하위범주로도 분류한다. 그에 따르면 학원폭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는 능동적 폭력과 수동적 폭력이다. 한 학생이나 집단이 한 학생을 상대로 신체적 해를 가하고 언어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능동적 폭력인 반면, 집단괴롭힘과 같이 은근히 집단적으로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경우는 수동적인 학원폭력이다.

집단괴롭힘과 관련된 심리학적 변인들

1. 과도한 폭력노출

청소년기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행동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이들이 다양한 장면과 상황에서 경험해 온 과도한 폭력노출을 꼽을 수 있다. 미국의 한 보고에 따르면 미국 청소년들은 TV 시청시간이 주당 27-28시간에 이르며, 대중매체를 통해 연간 약 13,000건의 살인을 목격한다고 한다(Waters & Malamud, 1975, 장취숙, 1993에서 재인용).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들(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대중매체 시청시간은 주당 22시간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으며(박혜원, 박금주, 1989), 그 내용 또한 살인, 폭력, 전쟁과 같은 폭력적인 장면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우선, 청소년 비행과 관련하여 텔레비전, 영화 등 대중매체에 의한 과도한 폭력노출은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그 위험성이 지적되어 왔다. 또한, 이런 대중매체의 폭력성은 학업성적, 독서량, 가치관 형성, 도덕관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다(Anderson, Lorch, Field & Sander, 1981). 실제 TV폭력물을 특히 좋아하는 아동들이 그렇지 않는 아동들보다 더 공격적이며, 아동들이 공격적인 프로그램을 더 많이 볼수록 공격행동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금주, 1992). 또한 종단적 연구에서 초등학교 시절에 폭력물을 선호하는 아동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더 폭력적인 행위에 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Perry, Perry & Boldizar, 1990).

대중매체로부터의 폭력노출 뿐 아니라 교사나 부모로부터의 폭력 또한 주목할 만하다. 흔히 ‘사랑의 매’ 혹은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교사나 부모의 체벌은 또래들간에 일어나는 폭력보

다 더 빈번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청소년대화의 광장, 1996).

그러나, 청소년기의 또래들에 의한 폭력노출은 부모나 교사에 의한 폭력에 비해 더욱 큰 중요성을 갖는다. 실제 청소년비행의 많은 부분은 또래에 대한 동조에 의해 비롯된다(이병기, 1999). 동년배에 대한 동조는 청년후기보다는 청년초기와 중기 동안 더 강해서 또래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부공포는 15세 경에 절정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loyd, 1985, 장휘숙, 1993에서 재인용). 이는 집단괴롭힘에 관한 많은 연구들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저학년의 발달립 실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바와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대중매체, 또래, 가정, 학교에서의 폭력노출이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행동에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들(예: 이해성, 1997)은 최근 김혜원과 이해경(1999)의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검증된 바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 가해행동에는 또래 폭력, 가정폭력, 대중매체폭력이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고, 피해행동에서는 교사폭력이 중요한 예측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가해와 피해행동 모두에서 폭력노출이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폭력노출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집단괴롭힘의 가해, 피해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과정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2. 공감능력의 결핍과 둔감화

폭력노출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집단괴롭힘 가해나 피해의 결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고찰에서 우선 많은 선행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한 개인이 많은 폭력에 노출됨으로써 그

사람은 폭력에 대해 점점 둔감해지게 되고 타인이 겪는 고통에 대하여 공감능력이 결핍될 소지가 있다. 폭력노출효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폭력노출이 증가할수록 개인들은 폭력에 대해 정서적으로 둔감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진, 광금주, 1991; Mullin & Linz, 1995). 특히, 주변의 환경과 자신의 환경사이에 긴밀한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발달단계인 청소년기에 과도한 폭력환경에 노출되는 것은 폭력에 대한 무비판적이고 무감각적인 성향을 키워나가게 할 수 있다. 실제 집단괴롭힘의 가해자들은 보통 학생들보다 폭력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Olweus, 1994), 공감능력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igby, 1993).

김혜원과 이해경(1999)은 그들의 연구에서 집단괴롭힘의 가해집단, 피해집단, 가해피해집단, 정상집단(가해피해경험이 없는 집단) 4집단간에 둔감화와 공감능력을 비교한 결과, 둔감화에서는 4집단간 차이가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가해집단은 정상집단이나 피해집단에 비해 공감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가해집단은 가해피해집단에 비해서도 공감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과도한 스트레스와 부적절한 스트레스 대처방식

연구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집단괴롭힘이 야기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입시위주와 통제위주의 교육환경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와 좌절을 강조한다(구분용, 1997). 입시위주의 환경은 학생들을 쉽게 좌절하게 만들고 욕구의 좌절은 분노를 야기하고 따라서 공격과 폭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욕구좌절이 폭력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결과는 많은 사회심리학적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구창모, 1991; Barker, Dembo,

& Lewin, 1941).

그러나, 일반적인 청소년 폭력과 같이 집단괴롭힘의 가해자들 또한 욕구불만이나 학업실패로 가해행동을 할 것이라는 가정은 Olweus(1977)의 연구에서는 입증되지 못했다. 다년간의 연구에서 스톡홀름에 거주하는 444명의 남학생을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종단적으로 추적 조사한 결과, 집단괴롭힘 행위는 불량한 성적이나 학업실패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들은 폭력이나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욕구좌절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에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 결함이 있다고 보고한다(D'Zurilla & Goldfried, 1973). 비행청소년들은 정상아동들에 비해 폭력이나 비행이외의 다른 건설적인 대안적 문제해결방식을 생성해내지 못하며, 창출된 대안 중 폭력을 사용하거나 강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데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공격적 행동이 가져올 장기적인 손실을 고려하지 못하는 등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단괴롭힘의 가해자들은 욕구좌절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건설적인 대안적 문제해결양식을 택하기보다는 공격적이거나 충동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으며 스트레스의 대처방식에서도 비효율적인 대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능성은 김혜원과 이해경(1999)의 연구에서 검증된 바 있다. 이들 연구에서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해 집단괴롭힘 가해, 피해, 가해피해 집단과 정상집단을 비교한 결과, 학업관련 스트레스나 대인관련 스트레스가 정상집단과 가해집단에 비해 피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는 적극적 대처에 대해서는 4집단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해, 피해, 가해피해집단은 정상

집단에 비해 더 소극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공격적 성향

집단괴롭힘의 원인을 설명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가해자들이 정상아동들에 비해 공격적 특성을 더 가졌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실제로 폭력행동을 하는 학생들에게서 가장 빈번히 발견, 보고되고 있는 심리적 특성은 분노와 공격성이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1996; 이시형, 1997; 정지민, 1998). 김혜원과 이해경(1999)의 연구에서도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가해피해 집단은 정상집단이나 피해집단에 비해 더 공격적인 성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보이는 공격성은 특히 4가지 요인과의 관련성이 특히 중요하다고 보고된다(Olweus, 1980). 첫째, 아동이 기질적으로 까다롭거나, 둘째, 체벌과 같은 부모의 가혹한 훈육이나 셋째, 아동에 대한 정서적 태도가 부정적하거나(은정과 관심의 부족 등), 넷째, 일차적 양육자가 아동의 공격적 행동을 허용하는 정도가 클 때 더 공격적인 성향을 발달시키기 쉽다. Olweus의 연구들에서는 남학생들의 공격성 수준은 그들 가정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관련이 없으며(Olweus, 1980), 위의 4가지 요인과 사회경제적 조건간에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Olweus, 1981). 단지 부부가 자녀의 앞에서 격돌하는 것만이 자녀가 후에 공격적으로 성장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Olweus, 1977). 따라서 집단괴롭힘 가해자의 공격성, 나아가 이들의 집단괴롭힘 행동은 가해자의 기질적 요인 뿐 아니라 부모의 양육태도나 사회의 폭력에 대한 허용과 같은 심리학적 요인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를 경험적으로 확인한 연구가 없기에 대한 결론은 아직 무리이다.

5. 자존감

Reasoner(1994)는 폭력과 범죄에 관한 1,000여 개의 연구논문과 언론 기사를 개관, 검토하면서 낮은 자존감이 여러 종류의 범죄나 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신종순(1991)의 연구에서도 폭력을 비롯한 반사회적 행동양상을 보인 청소년들은 자존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집단괴롭힘에 대한 연구에서는 괴롭힘 가해집단이 피해집단에 비해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lee, 1994; Austin & Joseph, 1996), 이와 같은 현상은 국내의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김혜원, 이해경, 1999; 이춘재, 광금주, 1999; 한종철, 이민아, 이기학, 1999).

그러나, 처음부터 높은 자존감을 지닌 집단이 집단괴롭힘의 가해자가 되고 낮은 자존감을 지닌 집단이 피해자가 된다는 가정은 무리일 것이다. 이는 집단괴롭힘 상황에서 피해자집단의 낮은 자존감은 집단괴롭힘을 유발하는 선행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집단괴롭힘의 결과로 피해자집단이 경험하는 것이라는 연구결과들(Olweus, 1994; Slee & Rigby, 1993)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6. 사회적 지지

집단괴롭힘의 가해자와 피해자간에는 사회적 지지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연구자들은 집단괴롭힘 가해와 피해의 감소방안으로 가족과 외부의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예: Howard, 1996). 구체적으로 이춘재와 광금주(1999)의 연구결과에서는 정상집단이 가장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다음으로 가해집단, 피해집단, 가해피해집단의 순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원과 이해경(1999)의 연구에서도 정상집단은 가족지지를 가장 많이 받고 있고, 다음으로 가해집단, 피해와 가해피해집단의 순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친구지지에서는 가해집단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그 다음으로 정상집단, 가해피해집단, 피해집단의 순으로 받는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에 제시한 다양한 심리적 원인들이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 둘째, 이 중 폭력노출이 특히 집단괴롭힘 가해와 피해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변수인지를 확인하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폭력노출이 다른 심리적 변인들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보이면서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현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다.

방 법

1. 조사대상자

서울시내 여자 중학교 1, 2, 3학년에 재학하는 827명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참가한 학교에는 각 학년 당 8학급씩 총 24개 학급이 있으며, 한 반은 평균 38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준비된 설문지를 학생들의 흠뻑시간을 이용하여 학급별로 일제히 배부하고 학생들의 응답이 모두 끝나기를 기다려 회수하였다.

2. 측정도구

사회경제적 배경

응답자들의 학년, 가정총수입, 부모의 생존여부,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에 대해 질문하였다.

폭력노출

폭력노출정도는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경험한 폭력의 정도를 크게 가정폭력노출에 대한 7문항(신뢰도계수 $\alpha=.81$), 교사의 폭력 노출 5문항(신뢰도계수 $\alpha=.81$), 또래의 폭력노출 6문항(신뢰도계수 $\alpha=.70$), 대중매체의 폭력 5문항(신뢰도계수 $\alpha=.83$)의 4가지로 구분하여 총 23문항의 폭력노출에 관한 문항을 본 연구자들이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1) 가정과 교사의 폭력: 가정에 대한 폭력노출은 부모에 의한 폭력노출경험과 가정내(친인척, 형제간)에서의 폭력노출경험을 각각 측정하였다. 가정과 교사폭력노출은 공통적으로 다음의 4개 하위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이는 ①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들은 경험, ② 빗자루나 물건 등으로 매를 맞은 경험, ③ 손으로 맞거나 발로 차인 경험, ④ 실제로 맞거나 욕설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위협적인 분위기로 무서움을 느낀 경험이다. 이들 문항에 대해 각각 5점 척도(1점: 한 번도 없었다 ~ 5점: 거의 매일 있었다)에 평정하게 하였다.

(2) 또래의 폭력: 또래(친구 혹은 선후배들)로부터의 폭력노출의 정도는 ① 또래들이 다른 학생을 욕설, 신체적 폭력 등으로 괴롭히는 것을 본 경험, ② 또래간 집단싸움에 가입한 경험, ③ 또래간 집단싸움의 목격경험, ④ 학교내 혹은 학교 주변의 폭력동아리의 개수, ⑤ 폭력동아리에 가입해 있는 친구의 수, ⑥ 이제까지 폭력동아리에

가입한 횟수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문항에 대해 각각 5점 척도(1점: 한 번도 없었다 ~ 5점: 거의 매일 있었다)에 평정하게 하였다.

(3) 대중매체의 폭력: 대중매체를 통한 폭력노출의 정도는 4개의 항목으로 측정되었다. ① TV, ② 영화나 비디오, ③ 컴퓨터, ④ 게임기, ⑤ 만화나 잡지에서의 폭력노출의 경험을 측정하였다. 이들 문항에 대해 각각 5점 척도(1점: 한 번도 없었다 ~ 5점: 거의 매일 있었다)에 평정하게 하였다.

(4) 전체 폭력노출: 가정, 교사, 또래, 대중매체 4개 하위영역에서 나온 점수들을 합산하여 전체 폭력노출 점수를 산출하였다.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의 정도는 Duban과 Ulman (1989)의 사회적 지지 평가척도를 변안(이명화, 1998)한 것을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들은 가족 지지(신뢰도계수 $\alpha=.92$), 또래지지(신뢰도계수 $\alpha=.86$), 교사지지(신뢰도계수 $\alpha=.80$)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요인마다 5문항씩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문항을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자존감

자존감 측정은 Rosenberg(1965)가 개발한 검사를 이영자(1996)가 수정한 10문항 중 내적일치도가 떨어지는 1문항을 제외한 9문항을 사용하였다(신뢰도계수 $\alpha=.84$). 이들 문항을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스트레스

정미영(1993)이 최해림(1986)의 스트레스 척도를

기초로 제작한 16문항을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스트레스의 측정은 내적 일치도가 떨어지는 문항을 제외한 대인관련 스트레스 5문항(신뢰도계수 $\alpha=.73$)과 학업관련 스트레스 8문항(신뢰도계수 $\alpha=.80$)의 총 13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문항을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스트레스 대처방식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Folkman과 Lazarus(1985)가 개발한 65문항의 대처방식척도를 정미영(1993)이 요인분석하여 제작한 24문항을 사용하였다. 최종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는 문제중심적 대처와 사회적지지 추구방식을 포함한 적극적 대처 11문항(신뢰도계수 $\alpha=.80$)과 정서완화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를 포함한 소극적 대처 10문항(신뢰도계수 $\alpha=.68$)이 포함되었다. 각 문항에 대해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공격성

공격성은 Dodge(1980)의 질문지를 광금주(1992)가 수정 제작한 5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신뢰도 계수 $\alpha=.76$). 이들 문항을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공감 능력

공감능력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상담에서 공감수준을 진단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공감 측정 방법은 Carkhuff(1969)의 척도를 응용하여 부모-자녀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대화내용(김정수, 1997)

2개와 친구간의 따돌림에 관련된 내용(이회경, 1999) 2개의 총 4개를 선정하여 측정하였다(신뢰도 계수 $\alpha=.50$). 이들 질문에 대해 각각 반응의 예들은 공감 1수준에서 5수준까지 모두 다섯 개의 반응을 제시하였다. 1수준은 공감수준이 가장 낮은 반응이고, 5수준은 가장 높은 공감반응을 의미한다. 따라서 반응수준이 낮을수록 공감능력 결핍을 의미한다.

둔감화

둔감화의 정도는 Mullin과 Linz(1995)연구에서 사용된 둔감화 지표를 이 연구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둔감화의 정도는 ‘학교폭력 사례’를 제시하고 이 사례에서 나오는 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측정 내용은 (1) 피해자가 얼마나 불쌍하다고 생각하는가? (2) 피해자에 대해 얼마나 동정심을 느끼는가에 대해 묻고 각 물음에 대해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에서 평정하게 하였다(신뢰도계수 $\alpha=.80$).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경험

집단괴롭힘의 가해정도와 피해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괴롭힘의 정의(이춘재, 광금주, 1999)에 해당하는 각 6개의 행동항목들에 대해 최근 6개월 동안에 “집단괴롭힘을 한 경험이 있는가”(가해값)와 “집단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가”(피해값)를 질문하였다. 구체적인 하위 항목은 (1) 욕하거나 심하게 놀리기, (2) 고의로 끼어주지 않거나 무시하기, (3)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위협하기, (4)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물건을 손상하기, (5) 신체적 특징이나 외모에 대해 험한 욕을 하기, (6) 헛소문으로 친구들이 그 학생을 싫어하게 하기에

대한 6개 항목이며 이들을 5점 척도(1점: 전혀 없다 ~ 5점: 거의 매일 있었다)에서 평정하게 하였다(신뢰도 계수 $\alpha=.85$).

결 과

1. 집단괴롭힘의 가해, 피해경험과 심리적 변인들 간의 관계

집단괴롭힘의 가해, 피해경험과 심리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이들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표 1).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가해와 피해경험은 공통적으로 폭력노출(가정, 교사, 또래, 매체)과 정적상관을 보여 폭력노출이 증가할수록 가해와 피해경험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해와 피해경험은 공통적으로 학업스트레스,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 공격성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경향이 높을수록 더 많이 가해와 피해를 당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존감, 가족지지와는 부적상관을 보여 자존감이 낮고 가족지지를 못 받을수록 가해와 피해를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경험과 달리 가해경험과만 상관이 있는 변인으로는 공감과 둔감화로, 공감능력이 떨어지고 둔감화되어 있을수록 가해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가해경험과 달리 피해경험은 교사지지, 가정, 교사, 또래, 매체로부터의 폭력노출

표 1. 집단괴롭힘에서의 가해, 피해경험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변인	가해 경험	피해 경험	자존감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스. 대처	공격성	폭력노출				공감	둔감	
				가족	교사	친구	대인	학업			적극	소극	가정	교사			또래
1. 가해경험	-																
2. 피해경험	.38**	-															
3. 자존감	-.13**	-.25**	-														
4. 가족지지	-.15**	-.18**	.47**	-													
5. 교사지지	-.02	.19**	.20**	.19**	-												
6. 친구지지	.05	-.31**	.45**	.37**	.22**	-											
7. 학업스트	.19**	.18**	-.44**	-.19**	-.19**	-.17**	-										
8. 대인스트	.05	.33**	-.40**	-.27**	-.14**	-.54**	.35**	-									
9. 적극대처	.00	.07	.33**	.29**	.30**	.25**	-.12**	-.09*	-								
10. 소극대처	.16**	.19**	-.10**	-.06	.08*	-.00	.22**	.17**	.26**	-							
11. 공격성	.40**	.16**	-.21**	-.19**	-.05	-.05	.22**	.17**	-.02	.23**	-						
12. 가정폭력	.39**	.34**	-.27**	-.37**	-.04	-.10**	.20**	.19**	-.06	.18**	.31**	-					
13. 교사폭력	.35**	.29**	-.07	-.12**	-.13**	.03	.20**	.07*	.10**	.14**	.30**	.37**	-				
14. 또래폭력	.44**	.25**	-.03	-.08*	-.09*	.09	.10**	-.02	.08*	.13**	.30**	.37**	.34**	-			
15. 매체폭력	.29**	.26**	-.10**	-.15**	-.04	.01	.17**	.07*	.00	.18**	.26**	.35**	.35**	.27**	-		
16. 공감	-.16**	.00	.15**	.24**	.16**	.08*	-.13**	-.08*	.20**	-.15**	-.23**	-.22**	-.19**	-.09*	-.15**	-	
17. 둔감화	.15**	.06	-.04	-.10**	-.08*	-.02	-.00	-.00	-.14**	.06	.15**	.09**	.11**	.12**	.08*	-.17**	-

* p < .05. ** p < .01

을 종합적으로 볼 때 예상되었듯이 공격성과 일관되게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또한 이들 폭력노출은 공통적으로 공감과 부적상관을 보이고, 둔감화와는 정적상관을 보여 폭력에 노출될수록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적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 둔감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족지지와는 공통적으로 부적상관을 보여 응답자들은 폭력노출의 정도가 높을수록 각종사회적 지지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와 관련하여서는 대인관계 스트레스,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모든 폭력노출이 정적인 관계를 보여, 폭력에 많이 노출될수록 더 많은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느끼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은 더욱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집단괴롭힘의 가해, 피해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이 집단괴롭힘 가해

현상과 피해현상을 설명하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Stepwise 방식으로 회귀분석을 하였다. 종속변인으로 집단괴롭힘 가해값과 피해값이 각각 사용되었고 예측변인으로는 모든 심리학적 변인들이 분석되었다. 응답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집단괴롭힘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 연구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므로 이에 관련된 변인들(학년, 가정총수입, 부모의 생존여부,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의 영향력은 회귀분석에서 우선적으로 통제되었다.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의 약 3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응답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집단괴롭힘 피해값을 종속변인으로 하였을 때 교사폭력, 자존감, 교사지지, 친구지지의 순으로 피해행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상관분석에서 이미 밝혀

표 2. 집단괴롭힘 가해, 피해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변 인	가 해 값				변 인	피 해 값			
	B	Beta	t	p		B	Beta	t	p
(사회경제적 변인들)					(사회경제적 변인들)				
또래폭력	1.697 .003		.170	2.961	교사폭력	2.250 .000	.451		4.697
공격성	1.186 .000		.213	3.922	자존감	-2.109 .003	-.330		-3.122
가정폭력	1.267 .003		.174	2.957	교사지지	2.399 .004	.301		2.948
매체폭력	.498 .040		.114	2.060	친구지지	-1.684 .008	-.288		-2.748
둔감	.564 .023		.117	2.283	(Constants)				
교사폭력	.551 .044		.115	2.021					
(Constants)					R ² = .458, F(19.73) = 3.242, p < .001				
R ² = .324, F(21.279) = 6.379, p < .001									

졌듯이 교사지지는 피해값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반면, 친구의 지지는 부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어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을수록 집단괴롭힘을 더 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경제적 변인들과 4개의 심리적 변인들은 집단괴롭힘 피해행동의 약 4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에는 모든 종류의 폭력에 노출된다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치고 피해행동에도 교사폭력이 가장 중요한 설명변수로 나타나고 있어 폭력노출이 집단괴롭힘과 갖는 밀접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가해행동에서와 달리 피해행동에는 교사와 친구의 지지가 중요한 설명변수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할 만하다.

3. 집단괴롭힘의 가해, 피해에 미치는 폭력노출과 심리적 변인들간의 상호작용효과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 폭력에 노출되는 경험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청소년들의 집단괴롭힘 현상으로 연결되는가, 즉 폭력노출은 특정 심리적 변인들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보이면서 집단괴롭힘 가해와 피해현상에 영향을 주는가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폭력노출 상, 하와 각각의 심리적 변인 상, 하를 피험자간 변인으로 하고, 가해값과 피해값을 피험자내 변인으로 한 3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상, 하집단 구분은 평균 3.66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에 대해 3원변량분석결과를 보면, 폭력노출의 주효과($F(1,714)=15.014, p<.001$)와, 가족지지에 따른 주효과($F(1,714)=10.361, p<.001$), 폭력노출 \times 가족지지 \times 가해/피해의 3원상호작용효과($F(1,714)=10.361, p<.001$)가 각각 유의하였다.

이에 대한 3원상호작용의 세부분석을 위해 가해값과 피해값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한 폭력노출 \times 가족지지의 2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가해값에서는 폭력노출의 주효과만이 유의하였다($F(1,713)=86.83, p<.001$). 평균에서는 폭력노출 상집단(평균 4.46)이 하집단(평균 1.62)에 비해 더 가해경험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피해값에서는 폭력노출의 주효과($F(1,713)=30.104, p<.001$)와 가족지지의 주효과($F(1,713)=8.752, p<.01$)가 모두 유의하였고, 폭력노출 \times 가족지지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하였다($F(1,713)=11.088, p<.001$). 평균에서 보면 폭력노출 상집단(평균 2.68)이 하집단(평균 1.13)에 비해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지지 상집단(평균 2.32)이 하집단(평균 1.49)에 비해 피해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효과에서 볼 때 폭력노출 하집단은 가족지지의 상하에 따라 피해의 정도에 차이가 없지만, 폭력노출 상집단은 가족지지의 상, 하집단에 따라 피해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폭력

표 3. 폭력노출과 가족지지에 따른 가해/피해값의 평균(표준편차)

		가해값	피해값
폭력노출 상	가족지지 상	4.369(5.567)	1.798(3.790)
	가족지지 하	4.571(5.233)	3.571(5.449)
폭력노출 하	가족지지 상	1.387(2.272)	1.190(2.681)
	가족지지 하	1.865(2.846)	1.085(2.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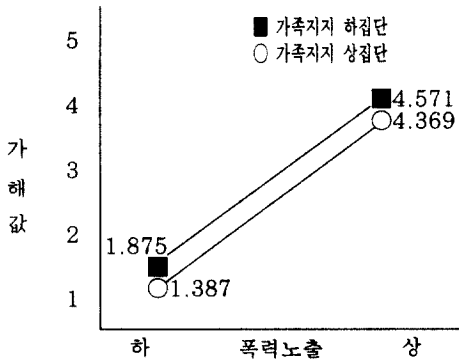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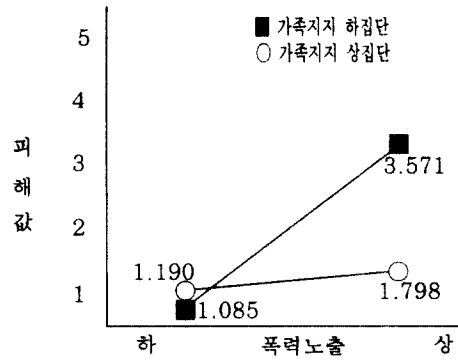


그림 2.

표 4. 폭력노출과 친구지지에 따른 집단괴롭힘 가해/피해값의 평균(표준편차)

		가해값	피해값
폭력노출 상	친구지지 상	4.293(5.047)	1.880(3.653)
	친구지지 하	4.364(5.126)	4.000(5.565)
폭력노출 하	친구지지 상	1.732(2.771)	.952(2.208)
	친구지지 하	1.404(2.145)	1.474(2.870)

노출이 많고 가족지지가 적을 때 집단괴롭힘의 피해는 가장 큰 반면, 폭력노출이 많으나 가족지지가 많으면 피해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는 그림 1과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가해경험은 가족지지와 상관없이 폭력노출의 양이 많을수록 증가하지만, 피해경험은 폭력노출의 양이 많을수록 증가하나 가족지지가 적은 경우에는 그 피해가 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표 4에는 폭력노출 상, 하집단과 친구지지 상, 하집단에 따른 가해와 피해 정도의 평균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폭력노출 상, 하집단 구분은 가족지지집단에서의 구분과 같이 평균 1.91을 기준으로 하였고, 친구지지 상, 하집단 구분은 평균치 3.78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에 대한 3원변량분석결과 폭력노출×친구지지×가해/피해의

3원상호작용 효과에서 유의미한 경향($F(1,712)=3.344, p=.068$)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부분석을 위해 가해값과 피해값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한 2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해값에는 폭력노출×친구지지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반면 피해값에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F(1,712)=8.813, p<.01$) 가족지지에서와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이를 평균을 통해 살펴보면, 집단괴롭힘 가해값은 친구지지의 양에 상관없이 폭력노출이 증가함에 따라서만 높아지는 반면(폭력노출의 주효과 $F(1,712)=88.898, p<.001$), 피해값은 폭력에 많이 노출되어 왔고 친구로부터도 적은 지지를 받을 때에(평균 4.00)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표 5에는 폭력노출과 스트레스 소극대처방식에 따른 가해와 피해의 평균이 제시되

표 5. 폭력노출과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따른 가해/피해값의 평균(표준편차)

		가해값	피해값
폭력노출 상	스,소극대처 상	4.546(5.235)	3.255(5.268)
	스,소극대처 하	4.300(5.432)	2.079(4.020)
폭력노출 하	스,소극대처 상	1.825(2.459)	1.254(2.830)
	스,소극대처 하	1.406(2.601)	1.094(2.237)

어 있다. 여기서도 폭력노출 상, 하집단 구분은 가족지지에서와 같이 평균 1.91로 하였고, 스트레스 소극적 대처양식에 따른 상, 하집단 구분은 평균 3.28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에 대한 폭력노출×소극대처×가해/피해경험의 3원변량분석에서 3원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경향($F(1,708)=3.127, p=.077$)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부분석을 위해 가해값과 피해값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한 2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해값에는 폭력노출×친구지지의 2원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피해값에는 유의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708)=3.251, p=.072$). 이를 평균을 통해 비교해 보면, 집단괴롭힘 가해값은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정도에 상관없이 폭력노출이 증가함에 따라서만 높아지는 반면(폭력노출의 주효과 $F(1,708)=85.602, p<.001$), 피해값은 폭력에 많이 노출되어 왔고 스트레스에 소극적으로 대처할수록(평균 3.25)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이 연구에서는 먼저, 다양한 심리적 원인들이 청소년들의 집단괴롭힘 가해와 피해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 둘째, 심리적 원인들

중 폭력노출이 특히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변수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셋째, 폭력노출이 다른 심리적 변인들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중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폭력노출이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행동 둘 다에 있어 중요한 일반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볼 때, 가해경험과 피해경험 모두는 가정, 대중매체, 교사, 또래에 의한 폭력노출과 정적상관을 보여, 폭력노출이 증가할수록 가해뿐만 아니라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분석의 결과에서 가해값을 결정하는 유의한 5가지 예측변수 중 또래폭력노출이 가장 큰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폭력, 대중매체폭력, 교사폭력노출이 모두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피해값에 대해서도 이를 결정하는 유의미한 3가지 예측변수 중 교사폭력이 가장 큰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결과를 볼 때, 집단괴롭힘의 가해행동은 피해행동에 비해 다양한 종류의 폭력에 노출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흥미롭게도 피해행동에는 교사폭력이 다른 종류의 폭력보다 중요한 원인이 됨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소년

년들의 일반 비행에서와 마찬가지로, 집단괴롭힘의 피해와 특히 가해에 대한 예방 및 대처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주변의 과도한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제도적 장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가 유발되는 과정에서 가해와 피해경험은 각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분석에서 볼 때 가해행동은 폭력노출과 둔감화와는 정적상관을 보이지만 공감과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해자는 폭력에 노출될수록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적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 둔감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해행동과 달리 피해행동은 폭력노출과 정적상관이 있으나, 공감이나 둔감화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해자와 달리 피해자는 폭력에 노출되어도 타인에 대한 배려나 고통에 대한 둔감화가 유발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폭력에 노출될수록 타인에 대한 배려나 공감능력이 떨어지고 둔감화(윤진, 박금주, 1991; Mullin & Linz, 1995)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의 가해행동에 관한 결과와만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집단괴롭힘의 대처방안에서 특히 가해자에 대해서는 공감능력의 증진이 중요한 대처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집단괴롭힘과 관련되어 실시되고 있는 공감능력증진 상담프로그램(예: 청소년대화의 광장, 1997)은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경우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은 폭력노출과 가족 지지에서 유의한 3원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고, 친구 지지와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는 3원상호작용이 단지 유의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구체적으로 가족지지, 친구지지,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3변인은 각각 폭력노출에 따른 상호작용분석에서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에 있어서 서로 다른 상호작용양상을 보였다. 즉, 가해행동에서는 폭력에 따른 주효과만 일관되게 나타나 폭력노출정도가 집단괴롭힘의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행동과 달리 피해행동에서는 폭력에 따른 주효과 뿐 아니라, 폭력노출과 다른 심리적 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즉, 피해행동의 경우 폭력노출이 클수록 피해행동 또한 증가하나 가족지거나 친구의 지지가 적고,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를 많이 할수록 상대적으로 피해는 더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폭력노출과 비행간의 매개변인 연구(Lee, 1993; Varni & Setoguchi, 1993; 양돈규, 성옥련, 1998)들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양돈규와 성옥련(1998)은 부부갈등(가정폭력)과 청소년기의 비행이 유발되는 과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청소년 비행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 교사의 지지가 폭력노출에 따른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지지와 마찬가지로 친구지지가 집단괴롭힘에 대한 폭력노출의 영향력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양돈규와 성옥련(1998)의 연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들 연구에서 부모나 교사의 지지와 달리 형제나 친구의 지지는 비행을 감소시키는 완충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오히려, 친구의 종류를 세분한 사후분석의 결과에서는 일반친구가 아닌 비행친구의 지지가 높을 때 청소년의 비행수준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돈규와 성옥련(1998)의 연구결과에서는 교사 지지의 증가가 비행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의 지지가 폭력노출과 비행에 완충역할을 함을 보여주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폭력노출과 교사의 지지간에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에서 폭력노출과 집단괴롭힘 피해 행동간에 가족이나 친구의 지지가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난 결과를 볼 때, 가족이나 친구로부터의 도움을 증가시키는 것은 집단괴롭힘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대처방안의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회적 지지 외에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도 폭력노출과 의미있는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에서와 마찬가지로 가해행동에서는 스트레스 대처방법과 무관하게 폭력노출이 많을수록 가해가 증가하는 반면, 폭력노출이 많으며 동시에 소극적 대처를 많이 할수록 피해는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단괴롭힘의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처리하는데 있어 소극적인 방법(예를 들어, '그 일을 무시한다'와 같은 정서중심대처 혹은 '그 일을 잊기 위해 다른 공상을 한다'와 같은 소망적 사고)보다는 당면한 문제를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교육이나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이 연구의 의의는 첫째, 집단괴롭힘 가해와 피해행동의 원인을 밝히는데 있어 심리적 변인들이 갖는 영향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심리적 변인들 중 가정, 교사, 또래, 대중매체에 의한 폭력노출이 가해와 피해경험을 결정하는 중요한 예측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둘째, 과도한 폭력노출

이 가해와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서로 다름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가해의 경우는 과거 폭력노출이 많고 적음에 따라 가해가 증가하나, 피해의 경우에는 폭력노출이 많아도 가족지나 친구지지가 많거나 스트레스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피해가 감소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집단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심리적 변인들을 다루고자 하였으나 현재 국내 연구들에서 제기된 다양한 심리적 변인들을 모두 다루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과도한 폭력노출이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에서 각기 다른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을 밝혀 폭력노출에 따른 효과가 가해와 피해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각기 다른 심리적 과정이 매개한다는 것을 시사받았지만, 직접 가족지지, 친구지지,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3변인이 직접 매개변인이 됨을 검증하진 못했다.

셋째,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중학교 여학생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집단괴롭힘에서의 남녀간 심리적 특성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서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곽금주(1992). 공격영화시청이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정보처리과정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곽금주(1999). 왕따에 대한 심리학적 관점. "왕따.

- 학교폭력 실태와 대처방안” **심포지움 자료집**, 69-81, 경희대학교 교목문제연구소
- 구본용(1997). 청소년의 집단따돌림의 원인과 지도 방안. **청소년대화의 광장**.
- 구창모(1991). **청소년 문제론**, 서울: 청소년 개발원.
- 권준모(1999). 학교폭력의 방법론적 고찰. “학교폭력의 학술적·사회적 대안” **1999년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움 자료집**, 27-40.
- 김용태, 박한샘(1997). 청소년 친구 따돌림의 실태 조사. **청소년대화의 광장**.
- 김정수(1997). 부자간 갈등에서 나타나는 비양립성 지각과 비행.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준호, 박정선, 김은경(1997). 학교주변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혜원, 이해경(1999).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행동에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권 1호, 45-65.
- 나병현(1996).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책, **입법조사연구**, 238, 국회.
- 박경숙, 손희권, 송계명(1998). 학생의 왕따 현상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박혜원, 광금주(1989). 아동의 TV시청에 관한 연구의 동향과 과제: 심리학적 연구를 위한 한국문헌고찰,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 125-142.
- 손진희, 홍지영, 양재혁(1998).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서울특별시 청소년 종합상담실**.
- 신중순(1991). 고등학생의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돈규, 성옥련(1998). 부부갈등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1998년 연차학술발표논문집**, 375-392.
- 이규미, 문영춘, 홍혜영(1998). 상담사례를 통해 본 “왕따”현상. **서울특별시 청소년종합상담실**.
- 이명화(1998). 음란매체 접촉에 따른 성갈등에 성태도와 지식이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병기(1999). **국민일보** 1999년 3월 1일.
- 이시형(1998). “왕따”현상에 대한 이해와 해결. **서울특별시 청소년종합상담실**.
- 이영자(1996).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춘재, 광금주(1999).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실태, 특성 및 대책**. 서울: 집문당.
- 이혜성(1997). 청소년의 집단따돌림의 원인과 지도방안에 대한 토론. **청소년대화의 광장 “따돌리는 아이들,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 사례연구 발표회 자료집**, 103-108.
- 이희경(1999). 역할수용을 통한 역할과 개인의 분리과 공감.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진, 광금주(1991). 대중매체의 폭력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소**.
- 장휘숙(1993). **청년심리학**. 서울: 청송.
- 정미영(1985). 성취관련 및 대인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방식과 사회적 지지의 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청소년대화의 광장(1996). **때리는 아이, 맞는 아이. 청소년 상담문제 연구보고서 15**.
- 청소년폭력예방재단(1996). **학교폭력,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서울: 한울림.

- 한중철, 이민아, 이기학(1999). 초등학생의 집단괴롭힘 개입 유형과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1(1), 95-108.
- Austin, S., & Joseph. S.(1996). Assessment of bully/victim problems in 8 to 11 year old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6, 447-456.
- Anderson, D., Lorch, E., Field, D. & Saders, J. (1981). The effects of TV program comprehensibility on preschool children's Television viewing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17, 446-453.
- Barker, R. G., Dembo, T., & Lewin, D.(1941). Frustration and aggression: An experiment with young children. *University of Iowa Studies in Child Welfare*, 18(1).
- Carkhuff, R. R.(1969). *Helping and Human Relations (Vol. I)*. New York: Holf, Rinebart, and Winston.
- D'Zurilla, T. J., & Goldfried, M. R.(1973). Cognitive Processes, Problem solving, and effective behavior. In M. R. Goldfried & M. Merbaum, *Behavior change through self-control*. New York: Plenum.
- Folkman, S., & Lazalus, R. S.(1985).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a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50-170.
- Haward, D. E.(1996). Searching for resilience among African-American youth exposed to community violence: theoretical issue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18, 254-262.
- Lee, W. (1993). *Social resources, social networks, and juvenile delinquency: an examination of the strength of t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 Mullin, C. R. & Linz, D.(1995). Desensitization and resensitization to violence against women: Effects of exposure to sexually violent films on judgements of domestic violence victi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3), 449-459.
- Olweus, D. (1978). *Aggression in the schools. Bullies and whipping boys*. Washington, D. C.: Hemis- phere(Wiley).
- Olweus, D. (1980). Familial and temperamental determinants of aggressive behavior in adolescent boys:A casu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6, 644-660.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Blackwell. Oxford UK & U.S.A.
- Olweus, D. (1994). Annotation: Bullying at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1171-1190.
- Perry, D. G., & Perry, L. C., & Boldizar, J. P. (1990). Learning of aggression. In M. Lewis and S. M. Miller(Eds.), *Handbook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35-146, New York: Plenum.
- Reasoner, R. W. (1994). *Self-esteem as an antidote to crime and violence*.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73281).
- Rigy, K. (1993). School Children's perception of their families and parents as a function of Peer relations. *The Journal of Genetics*

- Psychology*, 154(4), 501-513.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 Slee, P. T.(1994). Situational and interpersonal correlates of anxiety associated with peer victimization.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25(2), 97-107.
- Slee, P. T., & Rigby, K. (1993). Australian school children's self appraisal of interpersonal relations: The Bullying experience.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23(4), 273-282.
- Varni, J. W., & Setoguchi, Y. (1993). Effects of parental adjustment on the adaptation of children with congenital or acquired limb Deficiencies. *Journal of developmental & Behavioral pediatrics*, 14(1), 13-20.

The Effect of Violence-Exposure on School Bullying: On the Bases of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Violence-Exposure and Psychological Variables

Haegyong Lee · Hyewon Kim

(Hanyang University) (Hoseo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tried to identify 1) the relationships between school bullying and a number of psychological variables including violence-exposure, 2) if violence-exposure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variable affecting school bullying, 3) how violence-exposure affects school bullying, by exploring the interactions between violence exposure and psychological variables studied. A sample of 827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completed a questionnaire survey. In results, first, as schoolwork related stress, passive strategies to stress, aggressiveness, violence-exposure from all four sources, desensitization increased and as self-esteem, family's support, empathy decreased, bullying offending behaviors increased. Whereas, as teachers' support, stress, passive strategies to stress, aggressiveness, violence-exposure from family, teachers, mass-media increased and as self-esteem, support from family and friends decreased, victim behaviors increased.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es, all four sources of violence-exposure, aggressiveness, empathy were important predictors for offending behaviors whereas teachers' violence, self-esteem, support from teachers and friends were important predictors for victim behaviors. Third, the analyses on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violence-exposure and all other psychological variables on school bullying, respectively, showed that family's support and violence-exposure had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on bullying. On the base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possible interventions to school bullying were discussed.